

광주시 '한전인재개발원·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 최우선

국회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회의...4대 추진 방향 발표 전남도에 실무단 구성 제안...신축시 혁신도시 우선 입주 혜택 검토

광주시가 '공공기관 시즌2'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광주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을 이룬 나주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지역산업 시너지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유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 및 입차 기관 연내 이전 착수 방침에 발맞춰 지자체와 국회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약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강은미·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용민·이형석·조오섭·신정훈 국회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기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 서기관, 백수현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대응 ▲선(先) 혁신도시, 후(後) 광주도심 유치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가장 먼저 1차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중 한전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 부속기관으로

본사 및 계열사와의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광주시는 또 전남과의 상생 및 공동 대응 원칙도 강조했다.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유치가 성공했다면 이번에도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유치 시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공동혁신도시의 잔여 부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공동혁신도시 완성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빠른 이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심 공실 활용 등의 혜택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인재 양성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축에도 올인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노력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유치 희망 기관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공동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에 실무추진단 구성도 제안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갈 전남지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추진하겠다"면서 "공항공사 유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전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온·오프라인 연결해 광주 소상공인 자생력 키워야”

강기정 시장 15번째 정책소풍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근간인 18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디지털커머스(온라인상거래) 전문가인 ‘소담스퀘어 광주’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주제로 15번째 정책소풍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소풍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광주 18만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담스퀘어 광주’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광

주시와 KBC광주방송이 중소기업유통센터 공모에 선정돼 교육컨설팅·온라인 입점·라이브커머스·숏폼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의 단계별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700개 업체, 1500개 이상 제품의 온라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박성환 중소기업유통센터 팀장, 김중재 광주경제융합진흥원 차장, 김태관 KBC 신사업콘텐츠부장, 광주시 주재희 경제창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소담스퀘어 광주 지원사업 중 하나인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과 유사한 상품을 소개하는 스트

리밍 방송)에 참여한 월곡시장 ‘뽕이네’ 김명희 대표와 일곡동 ‘담미향’ 이지웅 대표도 참석, 사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온라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민간플랫폼 수수료 완화를 위해 행정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비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다. 광주 18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진흥하려면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확대하느냐의 문제다.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광주만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의회, 시민 의정 참여 강화

‘시민제보제도’ 365일 상시 가동·자유게시판 신규 운영 등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가 시민의 의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제보 상시 운영과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등을 신규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민 뜻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제보제도’를 365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시회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신규 운영한다.

시민제보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사례 등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시의회는 또 시민들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들이 제도개선·정책제안 등 의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에 활용하는 등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참여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무창 의장은 “일상 속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집·반영하는 ‘시민 정책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뜻이 온전히 의정에 반영되는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실화자 엄벌...산불 예방 협조해 달라”

김영록 지사, 특별담화문...전년비 60% 급증에 비상 체계 가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9일 산불대응 도민 특별담화문을 발표, 산림과 그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예방수칙과 신고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고, 바람도 강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남에선 27건의 산불이 발생, 55ha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60%나 늘어난 규모다.

실제로 지난 3일 순천 월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47ha의 산림이 불탔고, 복숭아 과수원 등 3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긴 지난 1월 5일부터 운영했다. 이어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 22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화자 등 산불 발생 원인은 끝까지 조사 후 엄중 처벌토록 해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어렵게 가꾼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잃지 않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건고 싶은 전남 숲길 5곳 선정

전남도가 봄꽃과 탁 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봄에 건고 싶은 숲길로 화순 오감 연결길,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목포 입암산 정원숲길, 보성 활성산성 편백 숲길 등을 선정했다.

화순 만연산에 조성된 3km의 오감 연결길은 소나무, 참나무, 수국 등이 어우러져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남 계곡면 흑석산에 조성된 흑석산 치유숲길은 3km로 철쭉꽃이 피는 봄 숲의 은은한 향기와 새소리가 느껴지는 산책로다.

여수 백사공도 반한 하화도 꽃섬길은 화정면 하화도에 조성한 5.7km의 길이다. 숲길 양쪽에 붉은 동백꽃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등 야생화를 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